

# “사회과학 서점의 안위 묻는 애뜻한 풍경 사라졌으면...”

김동운 | 서점 '그날이 오면' 대표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희망의 집결체고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그 주된 전달자다. 하지만 그 운명이 우리 시대에 극복해야 할 대상인 야만적 시장논리와 또 그것의 개인적인 표현인 개인주의적 삶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낮익은 풍경 하나.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국가와 혁명》 있어요?” “그 책들은 현재 절판돼서 우리 서점에 도 없는데요.” “그 좋은 책들을 왜 다시 찍지 않나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1년에 적어도 4~5백권 정도는 수요가 있어야 다시 찍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낮익은 풍경 둘.

“요즘 어떠세요? 대부분 다른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예전보단 많이 어려워졌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요즘 학생들 책 많이 안읽죠? 인터넷 서점들이 할인하는 것도 영향이

크죠?” “나름대로 열심히 읽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죠. 할인판매하는 인터넷 서점들의 영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 줘서 너무 좋아요.”

### 독자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사회과학서 줄어

인류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의식을 던져 주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필요한 사람들 손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더욱 발전된 것으로 대체되지도 않으면서 단순한 수요공급 법칙의 과정에서 소멸하고 있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의 그물에 걸려 구속될 각오하고 출간한 책들이 이제는 독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기획돼 나오는 책들까지 포함해서,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의식해 알아서 자기검열하는 경우나 수요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한 경우 등도 있지만 말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의 출판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서점의 운명은 더욱 위태롭다. 한때 1백개 이상이었는데 이제 이름이나 남아 있는 곳이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그나마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성격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회변혁의 모델로서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침체와 한국사회의 변화, 인문사회과학의 주된 수요계층인 대학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문사회과학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쓰지 않는 부분은

퇴화한다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인문사회과학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문사회과학은 그 시대적 사명을 다했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 야만적 시장논리에 밀려날 순 없다

인문사회과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올바르게 해명해 좀더 진보된 사회를, 좀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일궈가는 학문이 아닌가. 그렇기에 현실 사회가 개혁돼야 할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짧은 일생 동안 현실적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과, 긴 호흡 속에서 인간과 세계의 진리성을 담지해 나가려는 인문사회과학은 일정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킨다. 바람직한 사회 제도 속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끈을 놓지 않을 때 바람직한 삶과 사회를 향한 희망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이런 희망의 집결체고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그 주된 전달자다. 하지만 그 운명이 우리 시대에 극복해야 할 대상인 야만적 시장논리와 또 그것의 개인적인 표현인 개인주의적 삶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겨우 살아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질서와 크게 충돌하지 않거나 무더진 논리를 펴는 책들일 뿐이다. 더 이상 뒷걸음질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현실은 더욱 복잡해져가는데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좋은 책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애뜻한 마음으로 서점의 안위를 묻는 사람들이 없어도 될 풍경을 떠올려본다. ■

김동운씨는 1993년부터 서울대 앞에서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주민신문》이사로 활동중이다. 최근에는 서점 2층에 '이야기 카페'를 열어 저자와 독자의 행복한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